

01 ▶ 제49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주제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제49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 모델, 기후변화에 따른 곰팡이 독소 관리·영향분석, 외국의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연구 동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학계와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업계 등이 다양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02 ▶ 2013년 상반기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2013년 상반기 소비자단체장 간담회’가 서울 뱅커스 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약처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약처 승격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 의약품 재분류 본격 시행!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의약품 재분류(일반↔전문) 결과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을 구입·복용하는 소비자가 위조·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되었다. 단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04 ▶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 기념행사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나트륨 줄

01 ITATION

KFDA

제49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일시 | 2012. 1. 16.(수) 14:00~17:00
 장소 | 섬유센터컨퍼런스룸 C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룸)
 주제 |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현황
 주최·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 간	행 사 내 용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5	인사말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정영숙) 및 참석자 소개



이기 범국민 참여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참여주간 행사는 학술포럼, 단체급식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국없는 날 행사, 외식·급식업체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저염 요리책 출간 기념회 등의 행사와 서울광장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에서 미각테스트, 저염제품 시식회, 거리 캠페인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05 ▶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9일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초대 처장으로는 정승 처장이 취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승 처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식약처 제막식 및 기념 식수 행사 등을 함께했다. 정승 처장은 “식약청이 독립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식약처로 격상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감회를 밝혔다. 더불어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 근절은 이번 정부

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수입축수산물 검사현장 점검

06 ▶ 지난 3월 27일 정승 처장은 경인지방식약청 관할 용인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3월 22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 행복약속인 ‘국내외 불량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발표했다. 그 이후 수입 식품에 대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챙기는 한편, 검사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수입축수산물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